

# 일부지역 국민학교 양호실 이용실태 조사

순천간호전문 논문 제7집, 1982.

## 장 인 옥

본 연구의 목적은 학동들의 대부분의 건강을 담당하는 양호실을 이용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년별, 성별, 계절별, 증상별에 따른 이용도를 알아봄으로써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학교보건사업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져, 서울시내 모 국민학교의 양호실을 이용한 1,246명을 대상으로 1981년 3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양호일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.

연구 결과를 요약하면

1. 전체 총학생수에 대한 양호실 이용도는 50.8% (1,246명)였다.
  2. 학년별로는 5학년이 26.0% 가장 높고 1학년이 9.0%로 가장 낮았다.
  3.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51.4%, 남학생이 48.6%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여학생 중에서는 5학년(26.3%)이 가장 높았고, 1학년(8.6%)이 가장 낮았다. 남학생중에서는 5학년(25.7%)이 가장 높았고 1학년(9.4%)이 가장 낮았다.
  4. 계절별로 보면 봄(32.7%), 여름, 가을, 겨울의 순이었고 봄 가을에는 남학생, 여름, 가을에는 여학생이 높았다.
  5. 증상별로 보면 외상(35.2%), 소화기질환, 두통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학년에 따라 보면 1학년, 2학년, 3학년, 6학년에서는 외상이 4학년, 5학년에서는 소화기질환이 높게 나타났다.
- 계절에 따라 보면 봄, 겨울에는 외상, 여름과 가을에는 소화기질환이 높게 나타났다.

## 2. 제 언

전국의 대도시 지역과 농촌내지는 소도시 지역의 국민학교 양호실을 대상으로 두 지역간의 이용도를 비교 조사하여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재강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.

## 도시와 농촌지역 고교생들의 인구 및 가족계획관 비교

## 조 잡 출

### 1. 요 약

도시와 농촌지역 고교생들이 인구 및 가족계획관을 비교하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와 경북 선산군 고야면에서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 씩을 임의선정하고, 이들 학교에서 3학년학생 중 남녀 각각 130명씩 총 520명을 대상으로 하여, 1981. 6. 24~7. 4에 걸쳐 설문조사하여, 회수된 491명분 중 11명을 제외한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.

#### 1) 대상자의 일반사항

① 연령분포는 두 지역 모두 만 18세가 가장 많았으며(전대상자의 48.6%),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는 만20세이상의 고연령층이 더 많았다.

② 도시지역은 기독교(44.2%)가, 농촌지역은 불교(25.0%)가 가장 많았으며 도시지역(37.5%)에 비해 농촌지역(60.0%)이 종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.

③ 도시지역은 핵가족 87.5%, 대가족 12.5% 이고, 농촌지역은 핵가족 63.7%, 대가족 36.3%로 나타났다.

④ 평균가족수는 도시지역 5.6명, 농촌지역 6.3명이고, 9인이상 가족은 도시지역 1.6%, 농촌지역 10.4%로서,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가족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#### 2) 인구문제 및 정책관 비교

① 인구문제 및 정책에 대하여 지역간에 유의한 차 없이 전대상자의 56.7%가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, “관심없다”고 응답한 학생은 8.8%였다.

② 세계인구증가문제에 대하여 두 지역 유의한 차 없이 전대상자의 71.5%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.

③ 가장 심각하게 보는 인구문제로 도시지역은 인명경시풍조 및 인간성 상실(33.3%), 농촌지역은 환경오염(27.9%)을 들고 있었으며, 식량과 자원의 결핍을 들고 있는 군은 전대상자의 20.8%로서 두 지역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( $p < 0.01$ ).

④ 우리나라 인구상태에 대하여 도시지역이(71.7%), 농촌지역(57.5%)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. ( $p < 0.01$ ).

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높은 원인으로 두 지역 모두 남아선호사상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, 지역별이나 남녀별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( $p < 0.01$ , 표7 참조)

⑥ 효과적인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도시지역의 39.2%, 농촌지역의 64.6%가 가족

계획사업의 적극 추진을 들고 있어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지지율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훨씬 높은 반면, 인구교육강화나 이민장려를 효과적으로 보는 견해는 도시지역이 더 많았다. ( p <0.01)

### 3) 결혼관, 자녀관, 가족관의 비교

① 이상적인 가족형태는 두 지역 모두 핵가족이 압도적이거나 농촌지역(85.0%)이 도시지역(70.7%)보다 핵가족 성향이 더 높았다. ( p <0.01)

② 남자의 결혼적령기는 27~30세로서 두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의 결혼적령기는 24~26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어,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조혼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( p <0.01)

③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는 농촌지역(89.6%)이 도시지역(76.7%)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( p <0.01), 자녀의 필요이유로 도시지역은 낳아서 기르는 보람 (55.4%) 농촌지역은 화목한 가정분위기 때문(55.4%)을 우선으로 들고 있고 노후의 탁을 이유로 드는 견해는 두 지역 별 차이 없이 전대상자의 2.7%에 불과하였다. ( p <0.01)

④ 이상적인 자녀수는 아들·딸 구별해서 갖겠다는 군(전체의 51.9%)에서는 아들 1-딸1로 보는 견해가 48.2%로 가장 높았다. ( p <0.05)

⑤ 아들의 필요성은 농촌지역(62.9%)이 도시지역(39.2%)보다 강한 반응을 보였고, 두 지역 모두 남자가 여자 보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였다. ( p <0.01) 아들이 꼭 필요한 이유에는 지역간에 꺾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( p <0.01), 가문계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⑥ 결혼 후 딸만 둘 있을 때의 태도는 지역간에 별 차이 없이, 그만 낳고 딸만 키우겠다는 반응이 전대상자의 60.2%이었으며,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들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겠다는 반응은 이들의 14.7%에 불과하였다.

⑦ 바람직한 노후생활은 도시지역이 부부중심으로 67.5%, 아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28.3%였으며, 농촌지역은 부부중심으로 43.8%, 아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43.3%로 응답하고 있어 부부중심의 노후생활을 원하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더 높고, 또 남자 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. ( p <0.01)

### 4) 가족계획관 비교

① 가족계획 용어에 대한 이해는 도시지역(83.7%)이 농촌지역(75.0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( p <0.01)

② 가족계획과 산아제한의 의미에 대해서 도시지역(74.6%)이 농촌지역(45.9%)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. ( p <0.01)

③ 가족계획과 인공유산의 의미에 대하여 도시지역(58.7%)이 농촌지역(34.1%)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.

④ 도시지역(76.3%)이 농촌지역(57.5%)보다 구체적인 가족계획방법에 대한 인

지도가 더 높았으며, 남자는 남성의 피임법, 여자는 여성의 피임법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. ( p <0.01)

⑤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습득 매체는 지역간에 별 차이는 없었고 남녀간의 비교에서 남학생은 매스컴을 통한 지식습득, 여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이 가장 많았다.

⑥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율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더 높았다. ( p <0.05)

⑦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전대상자의 57.3%, 긍정적 태도가 42.5%였다.

#### 5)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관 비교

① 효과적인 교육대상은 미혼자 그룹으로 보는 견해가 전대상자의 82.9%로서 가장 높았다.

②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었으나 학교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 (전대상자의 84%)

③ 고교과정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전대상자의 94.4%로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.

④ 인구교육 담당교사로는 두 지역 모두 사회과교사나 가정과교사를 바람직하게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.

## 2. 결 론

1) 도시나 농촌지역 모두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, 인구의 고성장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는 있으나 인구의 고성장으로 초래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견해는 두 지역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. ( p <0.01)

2) 우리나라의 인구상태에 대하여 전대상자의 64.6%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( p <0.01)

3)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선진국 보다 높은 원인으로 도시나 농촌이 모두 남아선호사상을 우선으로 꼽고 있고, 기타 원인에 대한 견해는 두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. ( p <0.01)

4)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핵가족성향이 더 높고, 자녀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며 조혼성향이 더 높았다. ( p <0.01)

5) 자녀의 수나 성 및 노후생활 등의 자녀관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전통적인 관념을 더 강하게 나타냈다.

6) 가족계획에 대한 취지나 이념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은 도시지역이 더 높지만 ( p <0.01),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율은 농촌지역이 더 높았다. ( p <0.05)

7) 두 지역 모두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학교교육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, 고교과정에서 교육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3. 제 언

본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.

1) 효과적인 인구교육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보다 많은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.

2) 도시와 농촌지역 고교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요구도가 높으므로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전담 교과목을 고교과정에 개설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.

## 부모의 양육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욕구유형에 따른 상관관계

전북의대 간호전문대학 논문집, 8집, pp. 72~81, 1982

### 최 일 립

1981년 9월 10일 사이에 전라북도 소재 소년원생과 남녀혼합인 J고교생중 무작위 추출한 55명 도합 총 108명을 조사대상으로 욕구진단검사지에 의하여 청소년의 욕구유형을 검사하고 친자관계 진단검사지에 의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진단한뒤 각각 채점하여 부모의 양육형태와 청소년의 욕구유형간의 Simple correlation 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.

1-① 부가 소극적거부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굴종( $P < 0.05$ ), 성취( $P < 0.01$ ), 지배( $P < 0.01$ ), 과시의 욕구( $P < 0.01$ )간의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.

1-② 모가 소극적거부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성취( $P < 0.01$ ), 지배( $P < 0.01$ ), 과시( $P < 0.01$ ), 자율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.

1-③ 부가 적극적거부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굴종( $P < 0.05$ ), 성취( $P < 0.01$ ), 친애( $P < 0.01$ ), 지배( $P < 0.01$ ), 과시( $P < 0.01$ ), 자율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의한 역상관으로 나타났다.

1-④ 부가 적극적거부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성취( $P < 0.05$ ), 지배( $P < 0.01$ ), 과시( $P < 0.05$ ), 자율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의한 역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.

2. 부가 엄격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정동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의한 정상관계로 나타났다.

3. 부가 기대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지배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의한 정상관관계로 나타났다.

4. 모가 간섭형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것과 청소년의 성취( $P < 0.01$ ), 친애( $P < 0.01$ ), 공격( $P < 0.05$ ), 지배( $P < 0.05$ ), 과시( $P < 0.01$ ), 자율의 욕구( $P < 0.05$ )가 유